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제10차 김치신학세미나

일본 지역 목회자 초청

일본어 동시통역 봉사자 필요... 주일 예배 영어 동시통역 봉사자도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제 10차 김치신학세미나에 일본 목회자를 초청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갱신연구원은 제 10차 김치신학세미나에서 강의와 설교를 일본어로 동시통역할 수 있는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어 동시통역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성도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

김치신학세미나는 해마다 다른 문화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초청하여 약 10일 간 강의와 탐방 등을 통해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치세미나는 외국의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과 성장에 대해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 장기적으로는 자국복음화를 책임지도록 하여 세계선교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교전략이다.

매년 이 세미나의 제반 경비는 교회의 예산

이 아닌 성도들의 특별헌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올해도 성도들의 기도 지원과 물질적 헌신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우리 교회에 외국인들의 방문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주일 예배를 영어로 동시통역할 자원봉사자도 찾고 있다.

성경통독사경회 신청접수 중

사무국에서는 설 연휴 중 개최되는 '성경통독사경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설 연휴인 내달 15일(월)과 16일(화)에 열려 구약성경을 한번 통독하게 된다. 성경은 개역개정판 성경을 낭독에 사용할 예정이며 참가자는 읽기에 편한 성경과 필기구, 색연필 등을 준비하면 된다.

회비는 식대를 포함하여 1만원이며 등록은 선착순으로 제한된 인원만 받는다.

성경통독사경회는 지난 96년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모세 5경을 제외한 구약전권을 통독했다.

이후 98년 신정 연휴에 신약을 통독했으며 올해 설 연휴에는 다시 구약통독을 계획하고 있다. 참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에서 받고 있다.

제 1차부터 10차까지의 김치신학세미나 참가국

구분	실시일	권역	참가국
1차	1990. 11. 2. ~ 11. 11.	동구권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슬라비아
2차	1991. 5. 28. ~ 6. 6.	중국어권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미국, 영국
3차	1992. 5. 26. ~ 6. 3.	힌두교권	인도, 스리랑카, 불가리아, 일본
4차	1993. 5. 25. ~ 6. 3.	아프리카	보츠와나, 브룬디, 카메룬, 차드, 에티오피아, 가나, 가봉,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5차	1994. 5. 25. ~ 6. 3.	CIS	러시아
6차	1995. 5. 30. ~ 6. 9.	모슬렘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7차	1996. 5. 20. ~ 5. 29.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서사모아, 피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8차	1997. 5. 20 ~ 5. 29.	아시아권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미얀마
9차	1998. 4. 16, 5. 28 - 29.	한국	주한 외국인 선교사 및 목회자
10차	1999. 5. 24. - 6. 3.	일본	일본

1999년도 전도위원회 조직 확정

지도 이성득 목사 위원장 최종시 장로 서기 김태기 장로 회계 왕경래 장로
남선교회 협의회장 이상호 집사 간사 오유식 집사(바울), 우지원 집사(베드로), 성준모 집사(요한)
여전도회 협의회장 김예환 권사 간사 정정숙 권사(에스더), 허숙 집사(루디아), 이현주 집사(마리아)

■ 남선교회 임원

부서	직책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제6지회
요한	회장	김영구	최치순	김원웅	정세형	이영훈	성준모
	부회장	오승민	김금준	김혜연	유태서	전승근	박태규
베드로	회장	양인수	우지원	이종형	이대원	김성준	송인권
	부회장	채항석	김규태	선우중수	김광욱	신용식	김선희
바울	회장	오유식	손태기	박정수	이상호	이관규	최용길
	부회장	장무균	김현영	이동석	김승현	이남성	김관홍
모세	회장			박두영			
	부회장			이덕빈			

■ 여전도회 임원

부서	직책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제6지회
마리아	회장	서희자	이현주	김정란	이명신	이혜선	조선영
	부회장	조숙경	김복희	김규희	박남순	김숙화	김영림
루디아	회장	최재춘	김상옥	김경옥	한성옥	김명화	허숙
	부회장	이영자	김현정	박창희	김영식	이성애	송숙영
에스더	회장	이혜순	조삼원	정정숙	이영숙	전용순	김예환
	부회장	박정순	왕경희	손계경	함은희	장낙희	박경희
한나	회장	(한나 제1)	심재을		(한나 제2)	권영옥	
	부회장		최영순			이영자	

이사야 강해

모압의 미래에 대한 경고

이사야 16장 1-5절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했고 그 말씀을 따라 빨리 회개할 것을 권고했지만 모압은 그 말씀을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모압은 참으로 마음이 굳은 백성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도무지 자신들의 허물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1. 교만의 죄를 계속 범하면 망할 것이다

모압 사람들에게는 물산이 풍부했습니다 (7-9절). 모압은 그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세상에 관심을 크게 하고 일시적인 평안과 안일을 가져다줌으로 장래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게 된 모압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멸시하고 심지어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며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천대하는 악한 길로 자꾸 빠져들어 갔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화를 잘 내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과장해서 허세를 부림으로 만족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굉장하게 푹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작게 푹니다. 모압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함’ 이 그리고 ‘분노함’ 이 그의 힘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바처럼 교만하고 성난 계획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서곡으로 모압은 교만을 격퇴시킬 힘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경고 받는 모압의 슬픔

모압 백성이 그토록 자랑하던 포도 소출이 그들에게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모압에 물질적 궁핍함이 왔을 때 이들이 이때를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물질적 손해만 원통히 여기는 것을 끝냈습니다.

길하레셋, 헤스본, 십마, 아셀과 같은 도시는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모두 황폐하다고 했

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 하리라” 고 했습니다.

모압 백성들이 슬퍼한 이유는 성읍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읍은 불타고 부서져서 땅과 같이 낮아지고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백성들이 슬퍼한 이유는 나라가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저주

다.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수록 그들에게는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시 16:4).

모압의 멸망은 여호와께서 오래 전에 결정하신 바입니다(13절). 아사실은 모세오경에서 이미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무례하며 하나님 백성을 학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맥을 위하여 그들이 슬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 같이 소리를 발하여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삼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사 16:6-14)

이종운 목사



로 바뀐 것입니다. 모압 땅은 여호와와 동산처럼 비옥하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창 13:10).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광야와 사해에까지 이를 만큼 아름다웠던 동산이 이제는 가지들이 다 말라서 포도 소출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동산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포도 소출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존영의 때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존영의 때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지자는 아름답던 모압이 황폐된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리는 수금처럼 슬픔으로 떨고 있습니다.

성도는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눅 19:41).

3. 이제는 살 길이 없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학대함으로 그것을 경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12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모스는 모압을 위해 아무 것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 이미 차서 3년 내에 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14절).

구약에서는 멸망의 기한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므로 항상 준비하며 회개하고 최선의 충성을 해야 합니다.

14절에서는 모압의 영화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모압의 영화는 용맹스러운 군대와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다 죽고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14절)고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미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느느 백성들처럼 회개하면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 경고는 심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이 오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큰 힘은 기도와 사랑뿐

서준호 (프랑스 파리)

항상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서울교회 형제들에게 파리에서 편지를 올립니다. 이곳 낮은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처음 접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낯설음으로 떨렸지만 주님의 강하신 보살핌으로 이제 제법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지만 먼 이국땅에 내가 홀로 서고 보니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무치게 느낍니다. 파리에서 홀로 새해를 맞으면서 그동안 지켜 주신 주님과 여러분들의 무한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파리 하면 흔히 화려함과 유행의 도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곳에서 제가 놀란 것은 이곳 사람들의 겸손함과 절약정신입니다. 단지 화려함과 유행은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고 이곳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 분수를 지키는 가운

데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부러운 것은 이들의 자연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은 이들의 문화에 새롭게 놀라곤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파리4대학(Sorbonne)에는 많은 외국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많은 외국 학생들이 있는 만큼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전통 또한 대단합니다. 비록 가치관은 다르지만 이들이 자기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열성 만큼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이기주의와 냉소주의가 팽배한 요즘 시대에 그래도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건 이같은 젊은이들의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주님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이들을 변화시켜 복음화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열정

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점은 세계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지와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뭔가에 열중하고 미친듯이 달려가는 모습은 참 아름다와 보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청년들이라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린 작고 약하지만 주님의 강하신 권능으로 이루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학생생활이 시작인 저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곳에 더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항상 서울교회 형제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선교회 회원들께 드리는 글

고작 11개월 남았습니다

우지원(집사, 베드로선교회 간사)

1999년 새해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허물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 건물이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성전 건축은 거룩하시고 엄위하시며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닦고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감격스런 대역사이기에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선교회 회원 여러분!

앞서 많은 분들이 이 지면을 통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지난 날 저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혹 다른 분들은 그러시기를 양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남은 열한 달 동안은 교회에서 월례회 또는 여러 가지 제목으로 모일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필이면 이 어려운 때에 무슨 성전 건축을 하느냐고 투덜투덜 불평이나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 받는 못난 사람 되지 마시고 이런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

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베드로 회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어디서든 모일 때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찬송과 대화만 합시다. 잔뜩 차려 놓고 친목을 도모하고 재미있게 진행한답시고 유행가나 부르고 시시한 세상이야기,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사람들 흉이나 보고 험담이나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며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신앙간증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마지막으로 미자립 놓여온 교회 직원 등 교회가 세운 전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업계획을 숙지하시고 각 지회별로 세운 세부 계획이 하나하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갑시다.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금세기를 마감하는 금년 한 해도 이제 고작 열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 물질을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받는 서울교회 남선교회 회원이 됩시다.

우리 전도회는

행복을 주는 에스더

정정숙(권사, 에스더 제 3지회장)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 부귀영화가 주는 행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받아 누리는 자박에는 알지 못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그 행복과 기쁨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겠지요.

우리 에스더 전도회 회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성숙한 믿음으로 어느 사탄이 유혹을 해도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지키는 여장부가 되겠습니다.

위로는 한나전도회 언니들을 늘 존경하고 배우며 아래로는 루디아·마리아 전도회 동생들에게 늘 기쁨과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을 닮아 힘써 섬기는 에스더 언니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에스더 제 3지회 회원들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온 교인들의 필요를 살펴 기쁨을 늘 돕백 안겨 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지켜나가는 일에 부지런하겠습니다. 또 전도회원 각자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만을 좇아 살아 본이 되고 덕을 세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행복을 담백 안겨드리는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새가족이 되고보니

이젠 전도회 활동 적극 참여하렵니다

전복례 (새가족, 11교구)

제가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지 약 3개월이 지나았습니다. 그간 모든 것이 낯선 탓인지 다른 성도들과 만남이 서먹서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속 전도회 신임 회장으로부터 신년도 첫 월례회에 참석해 달라는 차분하고도 친근감이 넘치는 목소리의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척이나 힘이 나고 고마움이 넘쳐 월례회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가까와오자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모임에 한사람도 한면이 없어 매우 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일이나 지키지 뭐, 교회에 등록한 지도 몇 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무슨 월례회 모임까지 참석을 한담?” 스스로 마음의 담을 쌓고는 아예 그곳엔 가지 않으며 TV를 켜고 볼륨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웬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은 그곳 모임에 쏠렸고 여전도회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안전이 토의되고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자꾸만 궁금하여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결국 발걸음은 벌써 회장님 현관까지 닿았습니다. 그곳엔 이미 목사님과 많은 회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저는 숨을 죽이며 가만히 자리를 함께 하고는 “99년을 살아가는 희망과 도전”이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많은 음식들이 상에 놓여졌습니다. 큼직한 접시에 정성어린 음식이 담겨져 나왔고 접시마다 사랑과 기쁨, 진실과 감사가 듬뿍 담겨져 예쁘게 우리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모르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저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한 형제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월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맑은 얼굴에 말

수가 적고 말을 아끼는 회장님이 회의를 하나하나 진행하는 모습이 마치 주님의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각자의 소개를 하고나니 서먹함도 사라졌고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성경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는 숙제는 정말 좋았습니다. 또 교회 사랑과 전도, 구제, 봉사, 친교의 중요성이 토론되었고 각 부서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잘 설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월례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회장님의 지혜로운 리더십은 감명깊었습니다. 미려하나마 저도 여전도회를 통해 노방전도에 적극 참여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사람들과 만남에 나 중심으로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음식 준비하는 데도 소홀함이 있었지 않았는지...

“주님! 이제는 누구를 만남에 있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아끼며 음식 준비할 때도 그릇 마다 주님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주님의 사업에 사는 날까지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1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인도자와 함께 예배 전 환영식에 참여주시기 바랍니다.

* 1월의 새가족 *

박정옥 장산자 박운정 배혜영 김춘기 박삼순
정복성 윤부자 신승희 임승욱 최금례 임국병
김태미 김유진 이상희 송정희 오세민 이영애
송의경 최영옥 하인구 박승일 유수영 이광석
김민중 강영삼 이상재 박경자 김동훈 이영주
최정순 이명철 황창진 조유리 김돈영 전병운
홍정선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2월 학습·세례식

2월 학습·세례식이 24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 14일(주일) II부 예배 후,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21일(주일) II부 예배 후 각각 실시된다. 이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는 22일(월) 오후 7시 301호실에서 실시하는 추가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문답은 23일(화) 오후 7시에 있다.

동성

- * 이종운 목사는 1일(월) 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 임원회를 소집한다. 그리고 ‘예배와 설교 핸드북’ 출판 15주년 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2일(화)엔 126기도회 전국섬김위원 모임에서 설교하며 4일(목) - 5일(금)엔 숭실대 대학원 제 7회 전국목회자세미나에서 목회상담을 중심으로 한 성경연구를 발표한다.
- * 우심화 목사(소망부 지도)는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우 목사는 89년부터 이 대학에서 연구를 해왔으며 94년 학위과정에서 입학한 후 사학과에 제출한 박사 논문이 금년 1월 통과, 6월 학위를 받게 됐다.
- * 박정수·김경옥 집사(제 6교구)는 사후 5동 농협 옆에 ‘센세이션’ 양품점을 개업했다(☎ 895 - 3920).
- * 임동규·문창숙 집사 가정(제 1교구)은 가락동으로 이사했다(☎ 408 - 5617).
- * 김정호·신경희 집사 가정(제 6교구)은 평촌으로 이사했다(☎ 0343 - 424 - 3455).
- * 김성규·문혜진 성도 가정(제 6교구)은 논현동으로 이사했다(☎ 546 - 5439).
- * 임낙규·이현숙 집사 가정(제 11교구)은 가락동으로 이사했다(☎ 403 - 8191).
- * 이번주 식사는 김영주 집사·이해순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스데반회 회원은 1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와 현장 방문을 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의 겨울 성경학교·수련회를 위해
2. 새가족의 신앙성숙과 교회생활적응을 위해
3. 선교회·전도회의 사역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